

“스님들 원력 따라 우호증진에 혼신”

韓日불교교류협의회 신도회 창립
회장에 이희구 지오영 대표 임명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쌓아온 양국불교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더욱 증장시킬 신도단체가 세워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도회 창립법회를 거행했다.

한일불교협의회에 신도회가 창립된 것은 협의회 설립 30여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양국 스님들이 중심이 됐던 한일 불교의 우호증진이 신도로까지 확대돼 교



다저은 스님들의 경륜을 대승의 보륜으로 삼아 동체대비의 보살심으로 심신을 굳게 다지고 스님들의 원력을 받들어 한

고 말했다. 이날 신도회 창립법회에는 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협의회 부회장 인공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이사장 정산스님(천태종 전총무원장) 등 각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도 대거 참석하는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운집해 신도회 창립을 축하했다.

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창립법회를 계기로 다시 시작이라는 서원으로 작은 성과라도 만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사미계 2월25일
구족계 3월26일

2012년 수계산람 확정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고산스님)는 지난 13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불기 2556(2012)년도 사미(니)계 수계식, 구족계 수계산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람 일정을 확정했다.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은 오는 2012년 2월25일 제8교구본사 적지사에서 제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뒤, 제42기 수계교육을 수료한 스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3일 별세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지난 16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방송 새해예산 원안 확정 김운수·이각범 씨 이사 선출

정관개정은 이월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영담스님)는 지난 19일 열린 제77차 이사회에서 송석구·이용부 이사의 후임으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인 김운수 전 광주지법원장과 이각범 전국가정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21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해 3분의2 참석이 필요한 정관개정의 안건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이날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5조 임원

개정안이 이사회 개최통보와 함께 각 이사들에게 통보됐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이사는 “관련 개정 조항은 겸직금지조 인해 당연직 이사의 권한이 제한됐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의 불교방송 이사회

바로잡습니다
본지 2776호 8면에 수록된 조계종 포교사단 지역단장 선거결과 기사 중 사진 설명을 ‘강수대 부산지역단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1500억원은 역사교육관 건립비용 10·27법난 피해보상 전용 ‘불가’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불교TV 토론회 주장 반박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 이하 법난위원회)가 지난 13일 불교TV가 방영한 ‘10·27법난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윤원호 법난위원 등은 불교TV 토론회에서 “법난위원회가 1500억 원의 국가예산을 한꺼번에

명예회복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계종의 사업계획서들에는 역사교육관 건립 사업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법난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따져 물었다. 법난위원회는 “역사교육관 예산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부지 확정 안돼
예산집행 불가는
‘불용 처리’한 것

회가 1500억 원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 역사교육관 사업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불용으로 남긴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역사교육관 예산은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반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그간 역사교육관 예산을 국방부에 반납한 이유는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해옥스님 서울 금문사	덕운스님 대전 덕운사	자엄스님 경주 수곡사	대영스님 서울 보성사	황도스님 제천 무암사
본·말사 주지인사				
지승스님 육전 기산사	학해스님 철곡 금곡사	정현스님 부산 가야사	정오스님 기장 장안사	순행스님 기장 보명사
해도스님 대전 봉곡사	인범스님 영암 영불암	법상스님 목포 약사사	정도스님 충주 창룡사	삼륜스님 대구 관음사
도진스님 부산 보광사	주림스님 무안 도덕사			

세계가 인정한 중앙기록관! 개인소장품을 미래의 불교유산으로 가꿉니다.



▲정화운동의 틀을 정비한 제2차 비구승대회에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1954.9.29). 이 대회에서는 비구승들이 제정한 새로운 중현이 통과되었으며 중단 집행부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김홍사에서 성철스님이 설법을 마치면서 기념촬영(1966.7.14). 운달산 법회라고 불리웠던 이 법회는 성철스님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최초의 법문(20일간)으로 유명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모으기운동

단 한장의 기록, 불교의 역사입니다

소중한 기록을 영구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이 지원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개인소장품을 최첨단 중앙기록관 시설을 통해 미래의 불교유산으로 보존하며 기증품에 대해 특별전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 상 : <문서기록> 고승글씨, 필적, 육필원고, 편지, 일기, 전법계, 안거증, 포상증, 졸업장, 계첩, 전적, 사진첩서, 기타 서류 <사진, 녹음테이프> <큰스님유품 및 박물관> <불촉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 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3 팩스 720-1758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 교 신 문 사